



(주)클레온

국내 컬처 콘텐츠 AI 기술로 소통하고
ITU-T 표준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



klleon

기업명 (주)클레온

대표자 진승혁

홈페이지 <https://www.klleon.io>

주요사업 문화 콘텐츠 AI

설립일 2018년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3, T타워 18층

(주)클레온은 디지털 휴먼을 포함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의사소통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디지털 휴먼을 이용한 다양한 의사소통 서비스의 구성에 표준화 필요성을 느끼고 표준 기술 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ITU-T 공식 표준 활동을 처음 시작했다. 해당 프로그램 덕분에 (주)클레온은 디지털 휴먼을 이용한 의사소통 서비스의 요구사항에 대해 ITU-T 표준으로 기고해 작업 항목(Work item)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디지털 휴먼 서비스, 표준화의 필요성을 느끼다

(주)클레온은 디지털 휴먼을 포함한 AI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최근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정적 콘텐츠가 실감 나는 광고 또는 효과적인 교육 자료 등으로 우리의 일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에서 실제 인간을 대체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아바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고객 응대나 주문 처리와 같은 고객 서비스 산업에서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휴먼 기술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표준 개발은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휴먼의 표준을 가장 먼저 선점하고자 하는 중국이 2022년 3월 ITU-T 권고를 통해 디지털 휴먼에 대한 프레임 워크 및 평가 지표 등을 표준화했지만, 디지털 휴먼 기반의 각종 서비스의 형태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표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클레온의 인증 기술 관련 주요 성과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론 서비스 런칭 • 미국 지사 설립 • 서일본철도, 후지테레비, 토요시마와 MOU&POC 체결 • MWC 참가 및 글로벌 텔레콤 기업, 미디어 기업 협약 논의 • TED Talks, UDEMY, TCL과 MOU&POC 계약 체결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지사 설립 • CES 2022 혁신상 수상(카멜로, 클링) • MBN, 교원, 스마일게이트, NC소프트, LG U+와 POC 계약 체결 • 400 백류로 Pre-A 투자 유치 • 현대자동차, LG 전자 POC 계약 체결 •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Pre-A 투자 유치 • CJ ENM POC 계약 체결
2020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시드 투자 유치
2019	클레온 창립 및 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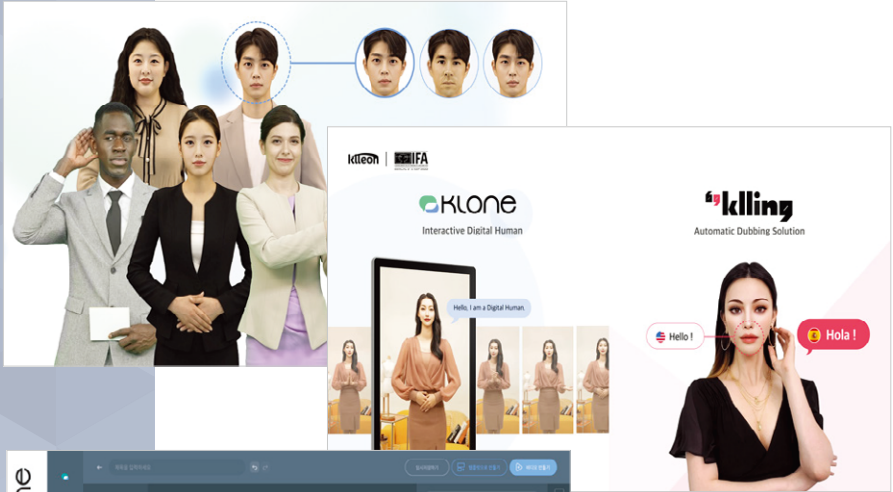
(주)클레온은 소통의 혁신을 지향하며, 디지털 휴먼을 응용한 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존재해 온 갖가지 제약을 뛰어넘은 소통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간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설계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휴먼 서비스의 형태가 있지만, 관련된 표준은 없는 것이 실무자로서 아쉬웠다. 또한 표준화를 추진하면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에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표준을 선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분명했으나 함께 수반되는 여러 복잡한 절차와 논의가 큰 진입장벽이었다.

자칫 헤맬 수 있는 ITU-T 기고, ICT 표준자문 서비스가 나침반 되어 주다

표준화를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도중, (주)클레온에서 2021년 3월부터 참여해오던 표준 기술 자문 프로그램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2022년 4월에 받은 자문을 계기로 회사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공식 표준화를 추진하여 ITU-T SG16에 기고하기로 목표를 수립한 것이다. 처음 기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준 전문가로 위촉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최미란 박사가 많은 자문을 제공했으며, 그 뒤에는 TTA의 매끄러운 행정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낸 첫 기고서를 2022년 8월 조사 위원(Rapporteur) 회의에 가져갔다. 신규 아이টে을 다룬 기고서인 만큼 조사 위원 회의의 참가자들에게 많은 피드백과 보완 요청을 받았고, 그에 맞게 대폭 수정하여 기고 내용을 신규 아이টে으로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첫 기고서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작업과 자문은 더 큰 회의를 앞두고 표준 관련 각종 절차

주)클레온이 필요로 한 서비스	TTA가 제공한 서비스
ITU, ISO 등 국제표준화 추진 여부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U-T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AI 표준화 동향 소개 ITU-T SG16 Q24 표준화 및 향후 표준 회의 일정 소개, 관련 연관성 논의 표준화 진행 방향 및 단계별 일정 자문
국제표준화(ITU-T SG16) 활동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U-T 표준 동향 및 제안 기고서 검토 신규 항목 제안을 위한 갭 분석 방법 자문 국제표준화 기구 활동 및 국내표준화 위원회 가입 방법 자문 국제표준화 절차 및 향후 표준 개발 계획 안내
국제표준화(ITU-T SG16) 표준 문서 작성 및 노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화 기구 관련 소그룹 선정 방법 자문 국제표준화 주제 선정 및 타이틀 선정 자문 기고서 초안 최종 검토 후 보완·수정 제안, 참고사항 논의 ITU-T SG16 정기회의의 발표를 위한 발표 방법 및 전략, 준비사항 등 조언 표준 특허 반영 가이드라인 제시



[서비스 이미지 클론 클링(IFA)]



[서비스 이미지 클론 스튜디오]

와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SG16 10월 전체 회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비대면 혼합으로 개최되었다. TTA에서는 신진 표준 전문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표준화 실무자들이 국제회의의 표준화 진행 과정을 대면 회의로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추가로 이번 회의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이 주요 쟁점 사안 중 하나로 다루어지면서, 회의 내 메타버스 워크숍에서 국가대표단과의 협조를 거쳐 (주)클레온이 디지털 휴먼 기술에 대해 발표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본 회의 현장에서 기고문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표준 전문가 최미란 박사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막힘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또 국가대표단으로 참석할 만큼, 회의의 구성과 절차부터 한국의 대응 기조와 전략까지 여러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최미란 박사는 SG16 Q24의 조사 위원을 맡고 있는바, 해당 질문의 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기고문이 포함된 회의 보고서가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